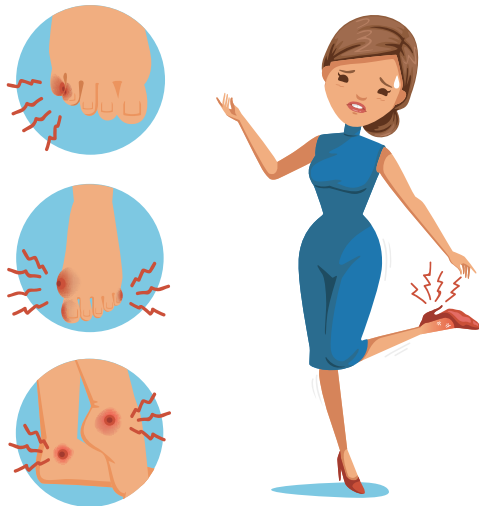


## 티눈과 사마귀는 어떻게 다른가요?

티눈은 만성적인 과도한 압력이 뼈의 돌출 등으로 국소 부위에 집중되는 경우 발생합니다.

발가락 등쪽이나 발바닥, 혹은 발가락 사이에 잘 생기며 표면에 윤이 나고 상층부를 깎아내면 병변의 가장 조밀한 부위에서 핵이 관찰됩니다. 바로 이 핵이 하부의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무디고 거북한 감각이나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.

티눈은 마찰이나 압력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러한 원인이 제거되면 자연 소실되기도 합니다. 딱 맞는 신발보다는 넉넉한 신발을 신어야 하며, 압력을 받는 부위에 반창고나 거즈 등으로 패드를 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병원에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티눈의 핵을 제거할 수 있으나 위의 방법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

1899-0001

예약상담시간 평일 08:30~18:00 토요일 08:30~12:30

[www.emc.ac.kr](http://www.emc.ac.kr)

EMC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
EMC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
EMC 강남을지대학교병원  
EMC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



피부과  
Dermatology

사마귀



EMC 을지대학교의료원

## 사마귀란?

사마귀는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(HPV)으로 피부 및 점막의 양성 증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. 매우 흔한 감염성질환으로 10대에서 흔하게 발생하여 5~25%의 유병률을 보입니다. 나이가 들면 유병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## 사마귀는 어떻게 전염되나요?

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됩니다. 손으로 자주 만지면 몸의 다른 부위로도 쉽게 퍼질 수 있으므로(자가접종) 주의해야 합니다.



## 사마귀 치료 방법

일반적으로 사마귀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.

치료법에는 전기소작법, 냉동 치료, 산의 도포, 레이저 치료, Bleomycin 병변 내 주사요법, 고용량 Cimetidine 복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치료법의 선택은 사마귀의 위치, 크기, 숫자, 이차 세균 감염 유무, 환자의 나이, 성별 및 면역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## 냉동 치료

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1차 치료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. 냉동 치료법은 -196°C에 달하는 액화 질소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를 10초 이상 얼려서 국소적인 동상을 만들어 파괴하는 방법입니다. 치료를 받고 나면 동상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통증과 물집, 진물 등이 4~5일간 발생할 수 있으며, 이후 딱지가 앉았다 떨어지면 다시 냉동 치료를 반복하게 됩니다.

시술은 보통 2~3주 간격으로 반복 시행하며 5회 이상 시술해야 효과가 있습니다. 치료 중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.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필요 시 다시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### 주사 치료

사마귀의 병변 부위를 소독한 뒤 해당 부위에 Bleomycin 용액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.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치료한 날부터 1~2일 정도는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.

시술 후 2~3일 사이에 치료 부위가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색조 변화가 생기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물집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. 씻기 등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, 치료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혹은 임의로 깎고 잘라내는 행동은 금지해야 합니다.

## 사마귀 치료 방법

### 전기소작술

사마귀의 병변 부위를 국소마취한 뒤 전기소작기계를 이용하여 병변을 태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. 국소적으로 단일 병변의 형태로 발생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. 단 치료 부위에 과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시술 후 발생한 딱지는 대개 2주 이내에 저절로 떨어져 나가므로 무리해서 억지로 떼어내지 마십시오.

### 치료 후 어떻게 유지하나요?

치료 결과는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마귀 병변을 파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. 수술적 제거는 병변보다 더 큰 흉터를 남기고도 높은 재발률을 보이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사마귀 치료법은 완치율이 약 50% 정도이며 재발률은 평균 25~50%입니다.

치료 완료 후에는 집에서 자가 도포할 수 있는 치료액을 이용하여 유지 치료를 합니다.